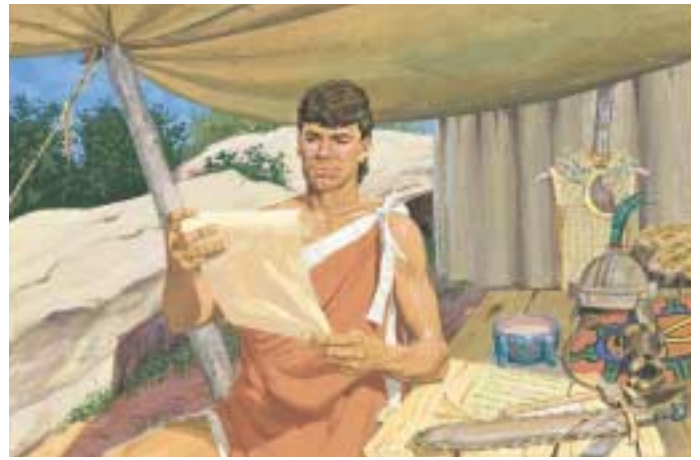


대장 모로나이와 페이호랜

제 35 장



모로나이 대장은 힐라맨과 그의 군대가 니파이인들의 땅을 대부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.

앨마서 59: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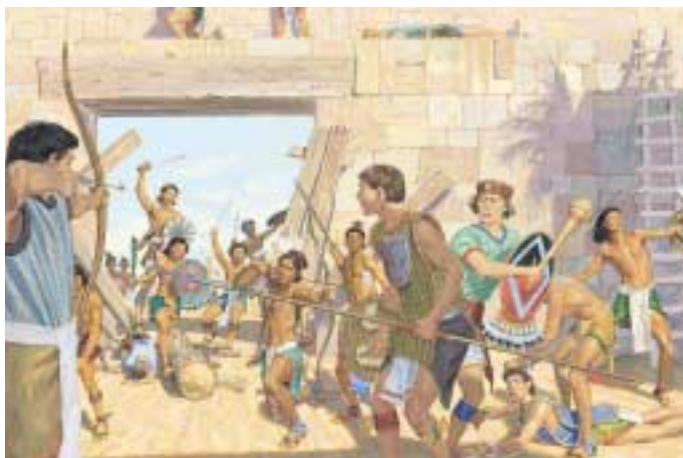
그러나 힐라맨과 그의 군대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. 그들이 그렇게 많은 도시를 방어하기에는 병사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.

앨마서 58:32



모로나이 대장은 대판사이며 통치자인 페이호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. 그는 페이호랜에게 힐라맨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를 더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

앨마서 59:3



레이맨인들은 힐라맨이 되찾은 니파이인들의 도시를 공격했습니다. 그들은 수많은 니파이인들을 죽이고 남은 백성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었습니다.

앨마서 59:5~8



모로나이는 정부 지도자들이 도와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페이호랜에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.

앨마서 59:13; 60:1



모로나이 대장은 페이호렌이 군사들을 더 보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썼습니다.

엘마서 60:5



페이호렌이 신속히 군사와 식량을 보내 주지 않는다면, 모로나이는 군대를 이끌고 제이라헤물라로 쳐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.

엘마서 60:34~35



곧 모로나이는 페이호렌에게서 답장을 받았습니다. 그는 모로나이와 그의 군대가 당한 고난에 대해 매우 슬퍼했다고 말했습니다.

엘마서 61:1~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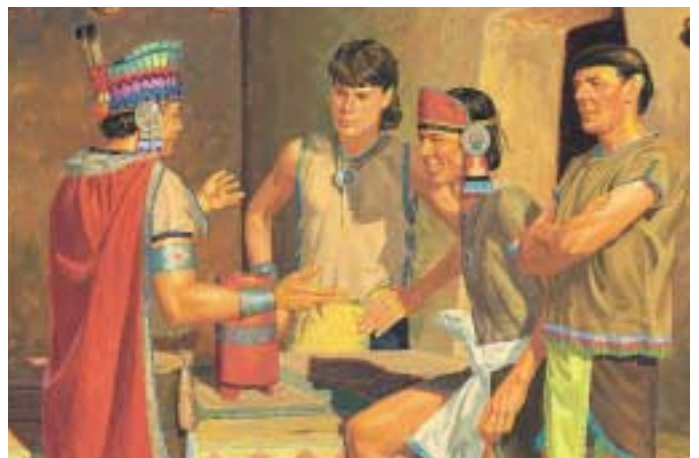
페이호렌은 왕당파라고 하는 사악한 니파이인들이 자신이 대관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그들은 페이호렌과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제이라헤물라 땅 밖으로 몰아내었습니다.

엘마서 61:3~5



페이호렌은 제이라헤물라를 되찾기 위해 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.

엘마서 61:6~7



왕당파는 왕을 택하여 그들의 지도자로 삼은 다음 레이맨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.

엘마서 61:8



페이호랜은 모로나이의 편지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. 페이호랜 역시 니파이 백성들의 자유를 원했습니다.

앨마서 61:9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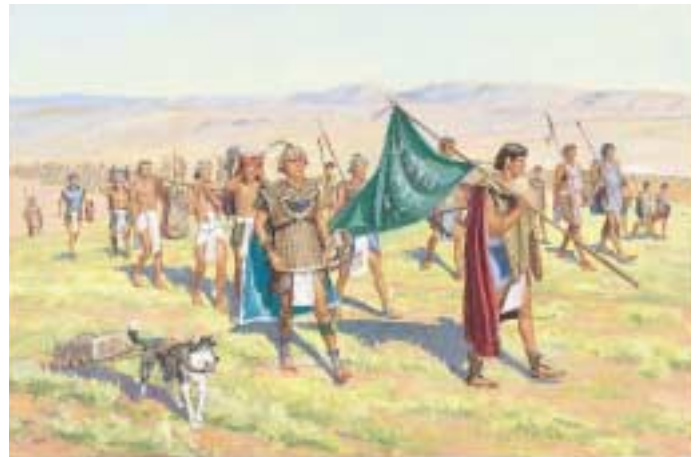
그는 모로나이에게 자신을 도와 줄 약간의 군사를 데리고 올 것을 부탁하면서 오는 길에 모을 수 있을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면 그들과 함께 제이라헤물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

앨마서 61:15~18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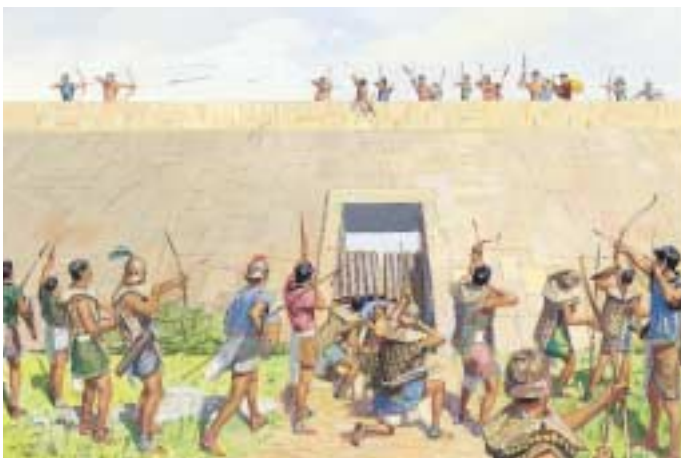
모로나이 대장은 페이호랜이 나라에 충성하며 백성들의 자유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.

앨마서 62:1



모로나이는 소수의 군사들을 데리고 페이호랜을 만나러 갔습니다. 그가 내세운 자유의 기치 아래 도중에 흩어져 있었던 수천 명의 군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.

앨마서 62:3~5



모로나이와 페이호랜의 연합 군대가 제이라헤물라로 진군했습니다. 그들은 사악한 니파이인들의 왕을 죽이고 군사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.

앨마서 62:7~8



모로나이는 니파이인들의 군대를 돕기 위해 양식과 12,000명의 군사들을 보냈습니다. 이 군사들이 레이맨인들을 몰아내자, 이 땅에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.

앨마서 62:12~13, 38~42